

2020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CONTENTS

06	들어가며
07	결과분석
07	양적분석
14	질적분석 : 성차별적 사례
15	나가며
17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9	체크리스트 사용 설명서

뉴스 내용분석 보고서

2020. 11. 17 - 11. 30

모니터링 대상

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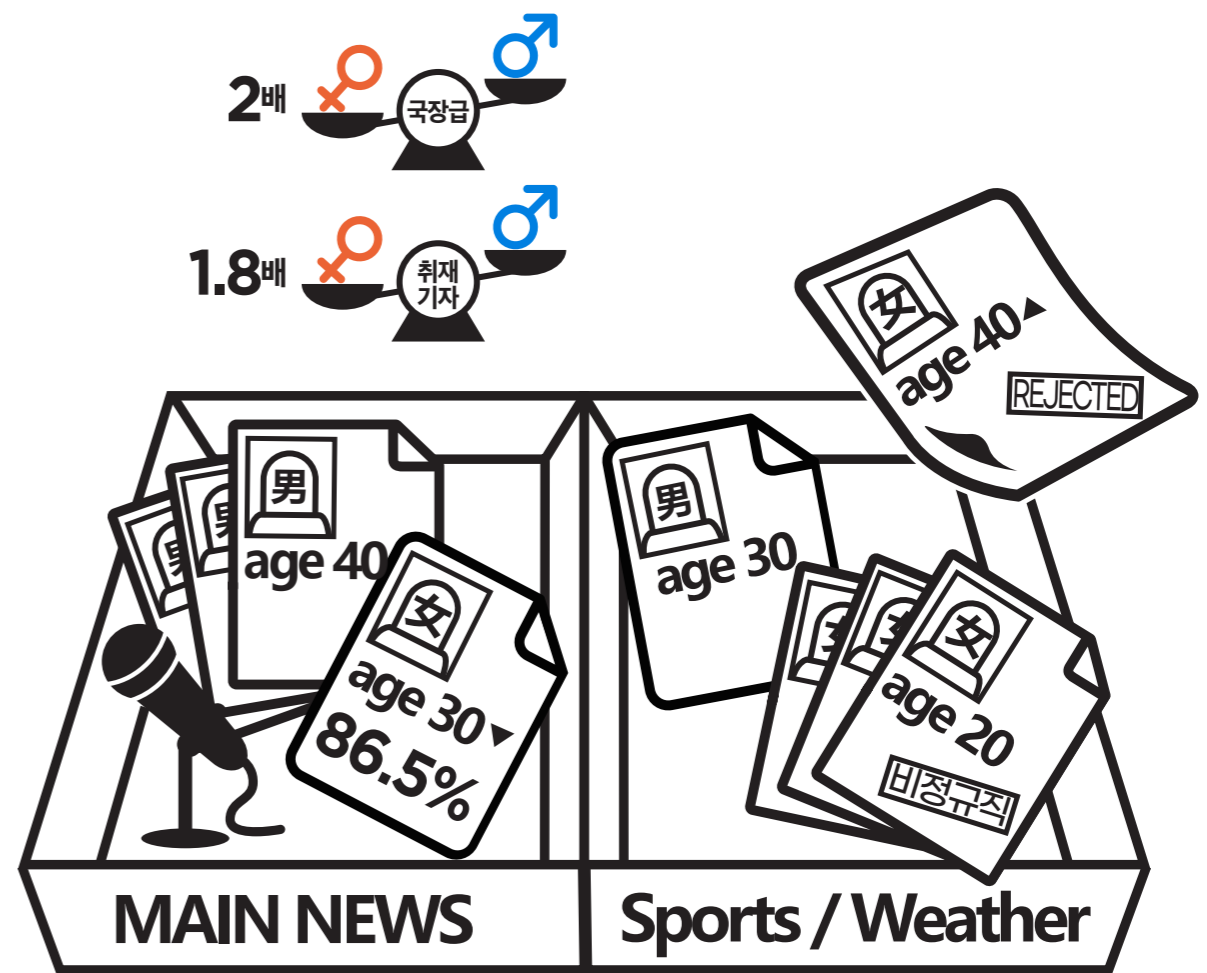
개 뉴스아이템

평균 아이템 수 **22.13**

각 뉴스 프로그램별 각 한 개의 평일 뉴스와 주말 뉴스를 포함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사 : 뉴스 모니터링은 지상파 3개(MBC, KBS1, SBS) 중편 4개(JTBC, MBN, TV조선, 채널A), 케이블 1개(YTN)
 모니터링 인원 : 5명

	방송사	프로그램	방영일자	아이템 수
1	MBC	MBC 뉴스데스크	11/27(금)	17
2			11/29(일)	14
3	KBS	뉴스9	11/17(화)	19
4			11/22(일)	12
5	SBS	SBS 8시 뉴스	11/25(수)	25
6			11/21(토)	14
7	채널A	뉴스A	11/30(월)	20
8			11/28(토)	16
9	MBN	MBN 종합뉴스	11/30(월)	31
10			11/29(일)	20
11	JTBC	뉴스룸	11/30(월)	32
12			11/29(일)	17
13	TV조선	뉴스 나인	11/27(금)	24
14		7시 뉴스	11/21(토)	20
15	YTN	YTN24	11/20(금)	50
16		뉴스특보	11/28(토)	23
	합계			354



01 들어가며

1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20-2호 vol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미디어 이용의 핵심자원과 변화 가능성, p15

방송통신심의 동향¹의 스마트폰 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이용행태 추이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보도 프로그램 시청 시간이 이전에 비해 6배 증가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미디어 이용을 분석한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시청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 시대에 뉴스의 영향력이 증대된 것이다.

유네스코의 미디어 다양성과 성평등 기준에 따르면(Media Diversity and Gender Equality)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회 구성원, 인간의 경험과 행위, 시각과 관심을 재현함에 있어 성별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이 원칙은 랜덤 선택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콘텐츠에서 재현된 여성과 남성 비율,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정보원의 여성과 남성 비율, 전문가·대변인·일반인 등으로 등장한 여성과 남성 비율,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 비율, 사회적 지위와 계층에 따른 여성과 남성 비율, 경성 뉴스와 연성 뉴스에 재현되는 여성과 남성 비율, 여성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내용의 비율, 여성과 관련된 주제가 주요 시간대 혹은 인쇄 매체의 주요 섹션에 배치되었는지에 대한 비율 등에 적용되며, 유네스코는 미디어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영역(사설 및 기타 발언 영역 등)에서 젠더 감수성을 보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뉴스가 성비 균형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성평등을 위한 유럽기구(EIG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에서 제시한 성별 균형 기준에서도 강조된다. 관련 기준에서는 성역할 묘사를 다루는 방송 매체에서의 고정관념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미디어 이미지와 제작물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송은 나이, 능력, 외모, 직업, 가족 상태에서 여성과 남성의 묘사에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뉴스 프로그램은 어떨까? 이번 모니터링은 프로그램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비율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02 결과분석

1 모니터링 대상 뉴스 아이템 주제 현황

모니터링에 포함된 뉴스 프로그램의 주제는 사회(153건), 정치(122건), 경제/과학(3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자보도가 포함된 뉴스 아이템 또한 사회, 정치, 경제/과학 순이었고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이 있는 뉴스 아이템 역시 사회, 정치, 경제/과학 순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는 사회, 정치, 경제/과학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뉴스 아이템 주제 현황

	아이템			기자보도		인터뷰·초점보도	
	건수(건)	총시간(초)	평균시간(초)	건수(건)	비율(%)	건수(건)	비율(%)
성평등 이슈	10	1,270	127	10	3.5	12	2.3
정치	122	15,409	126.3	103	36.3	151	28.9
경제/과학	38	4,793	126.1	33	11.6	83	15.9
사회	153	17,210	112.5	123	43.3	251	48.1
문화	10	1,224	122.4	10	3.6	18	3.4
생활정보	4	476	119	0	0	0	0
기상예보	13	896	68.9	2	0.7	1	0.2
스포츠	4	367	97.8	3	1	6	1.2
총계	354	41,645	112.5(평균)	284	100	522	100

2 앵커, 기상캐스터, 스포츠 아나운서 분석

2-1 성비, 연령대, 직위 분석

주요 진행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로는 여성이 15명, 남성이 12명 등장했다. 스포츠 뉴스 아나운서는 여성 3명, 남성 1명이었으며 기상캐스터는 모두 여성(15명)이었다.

뉴스 아이템 주제 현황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앵커	15	45.5	12	92.3	27	58.7
스포츠 아나운서	3	9.0	1	7.7	4	8.7
기상캐스터	15	45.5	0	0	15	32.6
전체	33	100	13	100	46	100

앵커의 연령 및 직위 분석

진행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로 여성 15명, 남성 12명이 등장했다. 여성 앵커가 남성 앵커에 비해 3명 더 많이 등장한 결과에 ‘여성 앵커가 주도적으로 뉴스를 이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앵커의 직위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2017년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² 보고서의 뉴스앵커 성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7개 채널 저녁 종합 뉴스 여성 앵커는 10명 중 8명이 30대 이하(80.0%)였다. 2020년도에도 여성 앵커 중 30대 이하는 86.5%로, 30대 이하 앵커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 앵커의 경우 2017년도에는 남성 앵커 10명 중 9명이 40대 이상(87.7%)이었으나, 2020년도에서는 40대 이상 앵커의 비율이 74%로 비율이 줄어들었다. 이는 30대 남성 앵커의 비율이 2017년도 12.2%에서 2020년도 25%로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도에는 50대 남성 앵커가 45.7%로 많았지만, 2020년도에는 40대가 58%로 가장 많았다. 즉 2017년도 모니터링과 연계해 살펴보았을 때, 30대 이하 여성 앵커를 선호하는 경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남성 앵커의 경우 2017년도에 비해 30-40대의 비중이 늘어나는 변화를 보였다.

직위를 살펴보면, 여성 앵커 15명 중 평사원이 73.3%(11명), 국장급 이상은 13.3%(2명)인 반면 남성 앵커 12명 중 평사원은 58%(7명), 국장급 이상은 25%(3명)으로 각 성별에서 국장급 이상의 비율은 남성 앵커가 여성 앵커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아 상위 직급의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² 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7

앵커 연령 및 직위

앵커성별	여성		남성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연령대	20대	2	13.3	0	0
	30대	11	73	3	25
	40대	2	13.3	7	58.3
	50대	0	0	1	8.3
	60대 이상	0	0	1	8.3
직위	평사원	11	73.3	7	58
	국장급이상	2	13.3	3	25
	알수없음	2	13.3	2	17
전체	15	100	12	100	

여성 앵커에게 젊음을, 남성 앵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는 경향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여성=뉴스의 꽃’이라는 기존의 공식에서 탈피하여 젊은 여성들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도 드러나고 있다. 2019년 11월, KBS는 이소정 기자를 지상파 최초의 여성 메인뉴

스 앵커로 발탁해 주목을 받았다. 평일뉴스의 메인 앵커는 중년 남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었기에, 40대 여성이 메인 앵커를 맡는 변화는 긍정적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앵커를 적극 기용하고, 여성 앵커가 다양한 뉴스를 다루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기상캐스터 및 스포츠 아나운서 연령 및 직위 분석

기상캐스터는 15명이 등장했는데 모두 여성이었다. 40대 이상은 찾을 수 없었고, 20대가 5명(33.3%) 30대가 10명(66.7%) 이었다. 스포츠 아나운서의 경우 여성이 3명, 남성이 1명 등장했다. 두 직군 모두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상캐스터 연령 및 직위

연령대	직위	여성	
		인원(명)	비율(%)
20대	프리랜서(계약직)또는 평사원	5	33.3
	알수없음	10	66.7
30대	프리랜서(계약직)또는 평사원	12	80
	알수없음	3	20
전체		15	100

스포츠 아나운서 연령 및 직위

연령대	직위	여성		남성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20대	평사원	1	33.3	0	0
	알수없음	2	66.7	1	100
30대	평사원	2	66.7	1	100
	알수없음	1	33.3	0	0
전체		3	100	1	100

2-2 앵커 성별 시작멘트/끝멘트 여부

뉴스 진행자에 대하여 앵커 성별에 따른 시작멘트와 끝멘트 담당 경향을 살펴보았다. 시작멘트의 경우 여성 앵커가 7명, 남성 앵커가 9명으로 남성 앵커가 여성 앵커보다 더 많았으며, 끝멘트의 경우 여성이 6명, 남성 앵커가 4명으로 여성 앵커가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중요도가 높은 뉴스가 도입부에 배치되고, 일상적 보도인 기상예보 직후 끝멘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작멘트를 담당하는 앵커에게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이런 측면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멘트를 남성 앵커가, 끝멘트를 여성 앵커가 더 많이 담당한다는 사실은 뉴스 내에서의 앵커의 성별에 따른 비중 차이를 드러낸다. 2017년 한국방송학회의 뉴스 모니터링 결과³와 비교해보면 2017년에는 시작 멘트를 남성 앵커가 전담하는 경우가 65.7%로 가장 많았고, 여성 앵커가 전담한 경우는 10.6%에 불과했다. 또 두 명의 앵커가 함께 시작 멘트를 하는 비율은 24.2%였다. 여성 단독 시작 멘트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³ 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7.

앵커 성별 시작멘트/끝멘트 여부 (앵커 역할)

앵커성별		여성		남성		전체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시작 멘트	해당	7	46.7	9	75	16	59.3
	비해당	8	53.3	3	25	11	40.7
	둘 다 해당	0	100	0	100	0	100
끝 멘트	해당	6	40	4	33	10	37
	비해당	4	27	3	25	7	26
	둘 다 해당	5	33	5	42	10	37
전체		15	100	12	100	27	100

2-3 앵커의 성별 담당 아이템 수, 아이템 시간, 말한 시간

여성 앵커의 총 수가 더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앵커의 성별로 담당 아이템 수와 아이템 시간, 말한 시간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17년 한국방송학회의 뉴스 모니터링⁴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뉴스아이템 소개는 남성 앵커가 여성 앵커보다 더 많이 담당했으나, 2017년 모니터링에서 여성 앵커의 뉴스아이템 소개 비율은 51.7%로 2개 뉴스아이템 중 1개는 여성 앵커가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 2017년 모니터링과 이번 모니터링간의 정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번 2020년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앵커의 담당 아이템 수, 아이템 시간 차이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앵커의 성별 담당 아이템 수, 아이템 시간, 말한 시간

앵커성별	여성		남성		전체	
담당 아이템 수	197개	58%	140개	42%	337개	100%
아이템 시간	23,705초	58%	17,389초	42%	41,139초	100%
말한 시간	5,000초	54%	4,257초	46%	9,257초	100%

**스포츠 아나운서와 기상캐스터를 제외함.

3 취재 기자 분석

취재 기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기자 283명 중 여성 기자는 35%, 남성 기자는 65%로 남성 기자가 여성 기자에 비해 1.8배 많았다. 기자 10명 중 여성이 3.5명이라면 남성은 6.5명인 것이다. 취재기자의 성별분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남성기자가 전체 뉴스취재 기자의 64%이고, 여성기자가 31% 내외였으며⁴, 여전히 뉴스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 중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기자의 성별에 따라 담당한 아이템 주제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기자 모두 사회와 정치 뉴스를 가장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말한 시간과 아이템 시간을 살펴보면, 아이템 수 차이에 따라 남성 기자의 아이템 시간이 1.8

4 위의 논문과 동일

배 정도 길었다. 아이템 시간의 경우 여성이 130초, 남성이 129.5초로 거의 비슷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자의 성별 아이템 주제, 길이

**한 기자가 복수의 아이템을 받은 경우 중복집계

기자성별		여성		남성		전체	
		아이템수(개)	비율(%)	아이템수(개)	비율(%)	아이템수(개)	비율(%)
담당 아이템 주제 유형	성평등이슈	2	2	8	4.3	10	3.5
	정치	35	35.4	67	36.4	102	36
	경제/과학	13	13.1	20	10.9	33	11.7
	사회	43	43.4	80	43.5	123	43.5
	문화	5	5.1	5	2.7	10	3.5
	생활정보	0	0	0	0	0	0
	기상예보	1	1	1	0.6	2	0.7
	스포츠	0	0	3	1.6	3	1.1
	전체	99개	100%	184개	100%	283개	100%
아이템시간(초)		12,905초		23,837초		36,742초	

4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의 성별, 연령, 역할, 뉴스주제 유형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의 성별, 연령, 역할, 뉴스주제 유형을 살펴보았다. 인터뷰 대상은 인터뷰를 목적으로 발언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보도에 관한 당사자나 관계자,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 사건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제시하는 시민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초점보도 대상자는 주제나 사건과 관련된 주요 등장인물로서 직접적인 인터뷰 대상은 아니지만 발언하는 모습이나 기자회견 등의 모습으로 클로즈업되어 보도의 초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뉴스가 누구의 목소리를 보편으로 삼아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신뢰하며 권위를 부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전체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자 509명 중 남성은 384명으로 75.4%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125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초점보도/인터뷰 대상은 50-60대에 집중되어 있어 50-60대 남성의 의견이 주로 다뤄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수로 등장한 이유는 역할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아닌 위치에서 전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제/사건 당사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혹은 제3의 관계자로 등장한 경우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등장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등장한 경우는 일반시민의 의견제시 뿐이었다(여성 10명, 남성 9명). 이는 뉴스가 주제나 사건을 분석하거나, 사건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로 남성을 여성에 비해 3배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나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공적인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질적 특성을 가진 시사보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경향으로, 전문성을 보태는 역할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의 성별, 연령, 역할, 뉴스주제 유형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의 성별, 연령, 역할, 뉴스주제 유형을 살펴보았다. 인터뷰 대상은 인터뷰를 목적으로 발언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보도에 관한 당사자나 관계자,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 사건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제시하는 시민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초점보도 대상자는 주제나 사건과 관련된 주요 등장인물로서 직접적인 인터뷰 대상은 아니지만 발언하는 모습이나 기자회견 등의 모습으로 클로즈업되어 보도의 초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뉴스가 누구의 목소리를 보편으로 삼아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신뢰하며 권위를 부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의 성별, 연령, 역할, 뉴스주제 유형

* 성별을 알 수 없는 음성변조(12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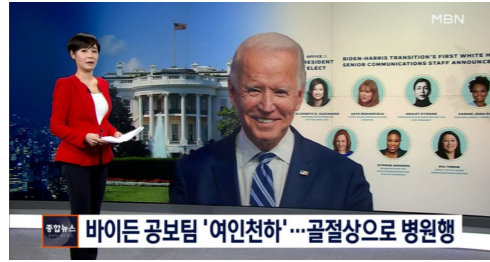
인터뷰/초점보도 대상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연령대	10대이하	6	4.8	3	0.8	9	1.8
	20대	9	7.2	19	4.9	28	5.5
	30대	13	10.4	27	7	40	7.7
	40대	21	16.8	58	15.2	79	15.5
	50대	36	28.8	121	31.5	157	30.9
	60대 이상	16	12.8	103	26.8	119	23.5
	알 수 없음	24	19.2	53	13.8	77	15.1
	전체	125	100	384	100	509	100
역할	주제나 사건에 대해 분석, 전문적 의견제시	42	33.6	137	35.7	179	35.2
	피해자로서 의견제시, 입장설명	5	4	14	3.6	19	3.7
	피의자(가해자)로서 의견제시, 입장설명	0	0	6	1.6	6	1.2
	주제/사건 당사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님)	52	41.6	163	42.5	215	42.2
	제3의 관계자	10	8	47	12.2	57	11.2
	일반시민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10	8	9	2.3	19	3.7
	해당 없음/기타	6	4.8	8	2.1	14	2.8
	전체	125	100	384	100	509	100
담당 아이템 주제 유형	성평등 이슈	9	7.2	3	0.8	12	2.4
	정치	24	19.2	125	32.6	149	29.2
	경제/과학	23	18.4	60	15.6	83	16.3

인터뷰/초점보도 대상 성별	여성		남성		전체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담당 아이템 주제 유형	사회	64	51.2	176	45.7	240	47.2
	문화	4	3.2	14	3.7	18	3.5
	생활정보	0	0	0	0	0	0
	기상예보 (기상캐스터가 진행)	1	0.8	0	0	1	0.2
	스포츠 (스포츠앵커가 진행)	0	0	6	1.6	6	1.2
전체	125	100	384	100	509	100	

전체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자 509명 중 남성은 384명으로 75.4%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125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특히 남성 초점보도/인터뷰 대상은 50-60대에 집중되어 있어 50-60대 남성의 의견이 주로 다루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수로 등장한 이유는 역할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아닌 위치에서 전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제/사건 당사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혹은 제3의 관계자로 등장한 경우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등장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등장한 경우는 일반시민의 의견제시 뿐이었다(여성 10명, 남성 9명). 이는 뉴스가 주제나 사건을 분석하거나, 사건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로 남성을 여성에 비해 3배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나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공적인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질적 특성을 가진 시사보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경향으로, 전문성을 보태는 역할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치 아이템의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자로 남성이 125명, 여성은 24명이 등장하여 정치 아이템에서 남성 인터뷰이, 초점보도 대상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분야와 관련된 남성 전문가의 기용 문제는 설명, 신뢰, 공적 영역의 담당자로 남성을 상정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서울YWCA는 2020년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통해 50대 남성이 시사보도 프로그램 전체 출연진의 1/3이라는 것을 드러내었고, 시사보도 프로그램 속 성비 재현이 남성 중심으로 이뤄질 때 지식, 정보, 공적인 것이 중년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성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여전히 중장년 남성들이 전문가로서 정치와 사회에 대한 담론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뉴스에서 중장년 남성이 미디어에 많이 재현되는 경우 청년, 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성 비하 사례

MBN / 11월 30일 MBN 종합뉴스



본 뉴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백악관 공보팀의 구성원을 모두 여성으로 인사 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미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공보팀 전원이 여성인 경우를 두고서 '여인천하'라는 표현을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약 240년 가까이 되는 민주주의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공보팀의 구성원이 전원 여성으로 꾸려진 것을 여성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보팀의 경우, 이전에도 여성의 진출 비율이 높았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행정부의 핵심 권력 부서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남성이 대다수인 정치권에 여성들의 임용이 조금 증가한 것을 두고 '여인천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여전히 성비가 남성 중심으로 기울어진 실제 상황을 무시한 보도이며, 성차별적인 구조를 가리는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03 나가며

5 방송통신심의동향 제2020-2호 vol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미디어 이용의 핵심자원과 변화 가능, p15

방송통신심의 동향⁵의 스마트폰 방송 프로그램 유형별 이용행태 추이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보도 프로그램 시청 시간이 이전에 비해 6배 증가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한다. 코로나 시대 한국 미디어 이용을 분석한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믿을 만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시청자의 욕구가 반영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유네스코의 미디어 다양성과 성평등 기준에 따르면(Media Diversity and Gender Equality) 뉴스 프로그램에서 사회 구성원, 인간의 경험과 행위, 시각과 관심을 재현함에 있어 성별간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뉴스의 영향력이 증대된 코로나 시대, 뉴스 프로그램에서 성비와 역할은 균형을 이루고 있을까?

진행 역할을 수행하는 '앵커'에 여성은 15명, 남성은 12명으로 여성 앵커가 남성 앵커에 비해 3명 더 많이 등장했으나 이 결과를 '여성 앵커가 주도적으로 뉴스를 이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에는 앵커의 연령대와 직위를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 2017년도 모니터링과 연계해 살펴보았을 때, 30대 이하 여성 앵커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직위면에서도 국장급 이상의 비율은 남성 앵커가 여성 앵커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아 상위 직급의 여성 비율이 낮았다. 취재 기자 283명 중 여성 기자가 35%, 남성 기자가 65%로 남성 기자가 여성 기자에 비해 1.8배 많아 여전히 남성 기자의 비중이 높았다.

성비 균형 뿐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 또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성평등을 위한 유럽기구(EIGE,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에서 제시한 성별 균형 기준에 따르면 성역할 묘사를 다루는 방송 매체에서의 고정관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자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은 뉴스가 누구의 목소리를 보편으로 삼아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목소리를 신뢰하며 권위를 부여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중요한데,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자 509명 중 남성은 384명으로 75.4%를 차지하였고, 여성은 125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많은 수로 등장한 이유를 살피기 위해 역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혹은 피의자가 아닌 위치에서 전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주제/사건 당사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혹은 제3의 관계자로 등장한 경우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 이상 많이 등장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이 등장한 경우는 일반시민의 의견제시 뿐이었다(여성 10명, 남성 9명). 이는 뉴스가 주제나 사건을 분석하거나, 사건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로 남성을 여성에 비해 3배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나 사건을 분석하는 전문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이 등장하는 것은 공적인 담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질적 특성을 가진 시사보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드러나는 경향으로, 전문성을 보태는 역할이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치 아이템의 인터뷰/초점보도 대상자로 남성이 125명, 여성은 24명이 등장하여 정치 아이템에서 남성 인터뷰이, 초점보도 대상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 분야와 관련된 남성 전문가의 기용 문제는 설명, 신뢰, 공적 영역의 담당자로 남성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모니터요원	
방송사	
프로그램 제목	
방송일자	
방송시간	

진행자 ID		전체 진행자									
ID	이름	성별	역할	직위	외모	연령대	담당뉴스 아이템수	담당뉴스 아이템시간	말한 시간	시작 멘트	끝 멘트
1											
2											
3											
4											
5											

아이템 ID :		아이템 진행자		주제 번호(번호)		아이템 길이(초)		
아이템 내용(간략히 설명)		이름	성별	역할				
영 커1								
영 커2								
기 자1								
기 자2								

인터뷰 대상/ 초점보도 대상ID		성별		연령대		직업		역할	
인터뷰 대상 1								(유형)	(기타일 경우 서술)
인터뷰 대상 2									
...									
초점보도 대상 1									
초점보도 대상 2									
...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국가인권회의 뉴스 프로그램 모니터링 자료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발견된 점은 긍정적이다. 이전 연구와 모니터링 범위, 시기 등이 다르기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여성 단독 시작 멘트의 비율, 성별에 따른 앵커의 담당 아이템 수, 아이템 시간 차이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앵커에게 젊음을, 남성 앵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는 경향은 여전히 있지만, ‘여성=뉴스의 꽃’이라는 기존의 공식에서 탈피하여 젊은 여성들이 뉴스 프로그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도 드러나고 있다. 2019년 11월, KBS는 이소정 기자를 지상파 최초의 여성 메인뉴스 앵커로 발탁해 주목을 받았다. 평일뉴스의 메인 앵커는 중년 남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었기에, 40대 여성이 메인 앵커를 맡는 변화는 긍정적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앵커를 적극 기용하고, 여성 앵커가 다양한 뉴스를 다루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인간의 경험과 행위를 다루며, 사회 문제를 인식하는 주요 창인 뉴스에서의 공정한 성역할 묘사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다. 성비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역할은 어떠한지, 성별에 따른 직위나 고용형태는 어떠한지 등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I. 기본 모니터링 정보

해당 항목에 기입하시오.

II-1 전체 진행자

뉴스 진행자는 앵커, 스포츠뉴스 앵커, 기상캐스터를 말합니다.
 진행자 ID : 번호로 표시. 추가 진행자가 있을 경우 아래방향으로 새로운 행을 추가하시오.

- 1) 이름 : 진행자 이름을 기록하시오.
- 2)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 3) 역할 : ① 앵커 ② 스포츠뉴스 앵커 ③ 기상캐스터
- 4) 직위 : ① 평사원 ②국장급 이상 (잘 모를 경우 빈칸으로 두시오.)
- 7) 연령대 : 인터넷 검색하여 진행자의 연령대를 기입하시오.
 검색 시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 보이는 외모로 파악하여 기입.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⑦ 알 수 없음
- 8) 담당뉴스 아이템수 : 한 진행자가 담당한 아이템의 총 수
 (모니터링 해당일자 뉴스 중 진행자 A가 담당한 뉴스 아이템의 수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뉴스 아이템이란 다시 말해 뉴스 시간 안에서 제시하는 개별 기사입니다.)
- 9) 담당뉴스 아이템 시간 (초) : 한 진행자가 담당한 모든 아이템의 총 시간으로 뉴스 아이템별 시간을 더해서 초 단위로 기록하시오.
 (담당한 뉴스 아이템이 10개로 각 아이템이 10초 걸렸다면 '담당뉴스 아이템 시간'은 100초입니다.)
- 10) 말한 시간 (초)
 한 진행자가 말한 총 시간으로 이 진행자가 담당한 개별 뉴스 아이템 시간에서 취재기자가 말한 시간 및 초정보도/인터뷰 대상이 말한 시간 제외
 (앞의 담당 뉴스 아이템 시간에서 진행자가 아닌 취재기자나 리포터 등이 말한 시간을 빼면 됩니다.
 개별 뉴스 아이템 시간 = 앵커 리포트 시간 + 취재기자 리포트 시간+초정보도/인터뷰 대상이 말한시간)
- 11) 시작 멘트 : 이 진행자가 시작 멘트를 했을 경우 1(예), 안 했을 경우 0(아니오)
- 12) 끝 멘트 : 이 진행자가 끝 멘트를 했을 경우 1(예), 안 했을 경우 0(아니오)

III. 아이템

아이템이란 단위 기사를 말합니다.

1. 아이템 진행자

아이템 ID : 아이템 당 하나의 아이디를 부여하고 순서대로 번호를 매김.
 아이템이 생길 때마다 행을 복사하여 아래방향으로 입력.

- 1) 아이템 내용 : 아이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헤드라인 수준으로 요약하여 기입하시오.
- 2) 주제 번호 : 아래의 보기에 따라 번호로 기록하시오. 주제가 복합적일 때에는 가장 지배적인 것을 써주십시오.
 가. 0) 모르겠음
 나.
 다. (10) 성평등 이슈
 ㄱ. (11)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ㄴ. (12) 일가정 양립 (여성 이중 부담, 남성 육아 휴직 등)
 ㄷ. (13) 여성 대표성 (여성 경제, 정치 진출, 유리천장, 여성할당 등)
 ㄹ. (14) 성평등 이벤트 (여성의 날 등)
 ㅁ. (15) 기타
 ㅂ.
 라. (20) 정치

모니터링 지표

성차별적 내용	
특정 성 비하	- 성별 속성을 근거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열등하게 간주하는 것 - 비하, 혐오적 발언을 하는 것 - 여성의 경우 미성숙하고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는 것 - 남성의 경우 능력이나 체력이 부족한 것을 경멸적으로 표현
성별 고정관념 강조	- 여성은 수동성, 연약함, 감정적, 종속적, 부드러운, 민감한, 감정적 등의 속성을 남성은 능동적, 강인함, 이성적, 지배적, 거친, 현실적 등의 속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며 여성과 남성은 이러한 속성에 의해 구분된다고 여기는 이분법적인 사고 - 남녀 간 생물학적, 선천적, 혹은 사회적 상하 관계를 설정하는 것 - 남성은 경제활동과 가족 부양 역할을 못하면 남성으로서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함 -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가족 내의 것으로 한정하고 이것이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며 여성 스스로도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 - 여성의 기사노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며 생산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기사노동 평가절하) - 여성의 모성애를 생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을 비판하거나 나아가 차별하는 이야기 구조, 대사나 장면 등을 포함 (모성 이데올로기)
성적 대상화	- 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전시하는 장면이나 그 욕망을 표현하는 대사 등을 포함 - 특히 여성에게 있어 성적 매력에 중요하고 이는 여성이 성을 주체적으로 즐기거나 보다는 남성의 성적 욕망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고 - 물과 성적 기능을 인격과 분리하여 단순한 도구로 위치시키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체인 것처럼 간주함

성차별적 내용	
외모 지상주의	- 아름다움이 여성에게 절대적 가치이며 필요충분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 - 미를 키, 몸무게, 얼굴 크기 등에 따라 정형화하며 이러한 기준에 들지 못하는 면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기도 함 - 이전에는 여성에게 많이 강조되었으나 점점 남성에도 적용되는 추이
성희롱 및 성폭력적 장면	-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주시, 혹은 성적 농담의 소재로 삼아 여성을 불편하게 하거나 인격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 성폭력을 연어감정이나 사람으로 낭만화하는 것 - 뉴스, 다큐멘터리 등에서 성폭력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묘사 등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

- ㄱ. (21) 행정 : 청와대, 총리실, 총무처 업무, 대통령 동정, 국제
- ㄴ. (22) 정당 및 국회: 정치권력, 정치투쟁/비리, 선거, 국회, 입법, 법원판결
- ㄷ. (23) 법제, 법조계
- ㄹ. (24) 국방/무기, 외교, 안보, 스파이
- ㅁ. (25) 북한문제, 대북/통일정책 등
- ㅂ. (26) 국제정치
- ㅅ. (27) 기타
- 마. (30) 경제·과학
 - ㄱ. (31) 경제정책, 거시경제/금융/재정/통상정책
 - ㄴ. (32) 산업 및 경영 : 재계 및 경제단체, 유망직종, 경영, 투자, 시장개방, 경제협력, 수출, 무역, 노동정책, 노사문제
 - ㄷ. (33) 부동산, 건설, 지역개발
 - ㄹ. (34) 증권, 은행
 - ㅁ. (35) 유통 (백화점, 시장), 소비자경제
 - ㅂ. (36) 국제경제 : 동향, 국제경제정책/기구
 - ㅅ. (37) 과학기술 : 기술/과학정책, 과학기술전반, 뉴미디어, 정보, 컴퓨터, 통신
 - ㅇ. (38) 기타
- 바. (40) 사회
 - ㄱ. (41) 환경문제, 환경기술
 - ㄴ. (42) 교육 : 학교교육, 사회교육, 입시관련 학부모 열기
 - ㄷ. (43) 의료, 건강 : 전염병, 질병, 의약정보, 의료기술, 보건/의료정책
 - ㄹ. (44) 범죄/경찰 : 범죄사건, 민생치안문제 및 정책, 경찰활동, 비리수사
 - ㅁ. (45) 재난/사고 : 산업재해, 교통/비행기/선박사고, 화재, 수해, 테러, 천재지변, 재난구조
 - ㅂ. (46) 시민/학생운동, 시민의식 (유권자/질서/환경/소비/공동체의식 등)
 - ㅅ. (47) 인권/복지 : 노인복지/장애자복지/아동 및 청소년복지/여성복지, 사회보장, 의료보장, 빈민정책, 동성애
 - ㅇ. (48) 가족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탁아 및 보육, 가족관행, 저출산
 - ㅈ. (49) 농어민문제 및 정책
- 사. (50) 문화
 - ㄱ. (51) 출판, 학술, 세미나, 공청회
 - ㄴ. (52) 종교, 종교단체
 - ㄷ. (53) 예술, 문화, 축제 (행사에 대한 단순정보면 54번에 체크하시오.)
 - ㄹ. (54) 매스컴, 연예, 오락
 - ㅁ. (55) 관혼상제
 - ㅂ. (56) 일반인 문화/여가/취미/스포츠/레저활동
 - ㅅ. (57) 스타일 : 패션, 미용, 음식
 - ㅇ. (58) 공식 스포츠 (고정 스포츠 아닌 일반기사 중 스포츠관련 기사)
 - ㅈ. (59) 기타
- 아. (60) 생활정보 (고정시간대가 아닌 일반기사 중 다음의 단순정보)
 - ㄱ. (61) 날씨
 - ㄴ. (62) 단전, 단수예보
 - ㄷ. (63) 직업안내
 - ㄹ. (64) 행사안내
 - ㅁ. (65) 사람들, 인사, 모임
 - ㅂ. (66) 교통정보
 - ㅅ. (67) 기타
- 자. (70) 기상예보 (기상캐스터가 진행)
- 차.

- 카. (80) 스포츠 (스포츠 앵커가 진행)
- 타.
- 3) 아이템 길이 : 아이템의 보도 시간을 초 단위로 기록합니다.
- 4) 이름 : 해당 앵커나 기자의 이름을 기입하시오.
- 5) 성별 : 1) 남성, 2) 여성
- 6) 역할: 앵커의 경우에만 역할을 표시하시오.
 ① 앵커 ② 스포츠뉴스 앵커 ③ 기상캐스터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를 하거나 스튜디오에 와서 사건 설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아이템 인터뷰/초점보도 대상**

인터뷰 대상이란? 인터뷰를 목적으로 발언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 피해자일수도, 전문가일수도 있음. 전화인터뷰, 얼굴을 가린 인터뷰도 포함
 초점보도 대상이란? 주제/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등장인물을 말할. 직접적인 인터뷰 대상은 아니지만 발언하는 모습이나 기자회견 등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클로즈업되면서 보도의 초점이 되는 사람.

대상 ID : 번호로 표시. 대상이 많을 시 행을 복사하여 아래방향으로 입력.

- 1)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 2) 연령대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⑦ 알 수 없음
- 3) 직업 : 단답식으로 기입하시오.
- 4~5) 역할 (기타일 경우 서술형으로 옆에 기입하시오.)
 ① 주제나 사건에 대해 분석, 전문적 의견제시
 ② 피해자로서 의견제시, 입장설명
 ③ 피의자(가해자)로서 의견제시, 입장설명
 ④ 주제/사건당사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님)
 ⑤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니면서 시민이나 구경꾼보다 주제/사건에 근접해있는 제3의 관계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⑥ 일반시민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⑦ 해당 없음
 ⑧ 기타

초점보도 대상 ID : 번호로 표시. 초점보도 대상이 많을 시 아래방향으로 새로운 행을 추가하시오.

- 6)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 7) 연령대
 ① 10대 이하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⑦ 알 수 없음
- 8) 직업 : 단답식으로 기입하시오.
- 9) 초점보도 대상의 역할
 ① 주제나 사건에 대해 분석, 전문적 의견제시
 ② 피해자로서 의견제시, 입장설명
 ③ 피의자(가해자)로서 의견제시, 입장설명
 ④ 주제/사건당사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님)
 ⑤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니면서 시민이나 구경꾼보다는 주제/사건에 근접해있는 제3의 관계자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⑥ 일반시민의 의견제시, 입장설명
 ⑦ 해당 없음
 ⑧ 기타
- 10) 앞에서 기타를 선택했을 경우 서술형으로 기입하시오.

2020 대중매체 여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행인 : 이유림 | 편집인 : 양선희 | 편집 : 최동경(에디터)김유민(서울YWCA 여성운동과) | 감수 : 김수아(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발행처 : 서울YWCA | 주소 :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 1가길20
전화 : 02-3705-6069 | 팩스 : 02-3705-0020 | 홈페이지 : www.seoul.ywca.or.kr | 발행일 : 2021년 12월 | 발행기관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